

이기적이거나 덜 이기적일 뿐이다

We are either selfish or less selfish

룻기 3장 1-11절

-
1.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2.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5.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10.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

1. ‘기업 무를 자’라 불리는 고엘 제도(레25:24-25)와 계대혼인법(신25:5-6)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법일까요? 그리고 어떤 법인지 설교를 통해 혹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알아봅시다.
2.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무를 자’라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를 자라면, 그가 자신들을 도울 마음만 있다면, 이 고난과 가난의 대장정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린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나요? (3-4절)

3.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요청을 그대로 따른다. 한 여인이 남편이 아닌 남자의 잠자리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나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봅시다.

☐ 무례한 행동이다 ☐ 무모한 행동이다 ☐ 성급하고 조급한 행동이다

4.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10-11절)

5.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의 영어 번역이 ‘redeemer, 구원자’입니다. 보아스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까지도 용납하시고 수용하실까요? 그 부분을 묵상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